

# “영적 각성·종교화합이 나의 메시지”

## 인도 다람살라서 만난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는 14일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위원회 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데 있어 티베트인과 한국불자들은 형제와 같다”면서 “한국인들이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 늘 행복과 원만한 성취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티베트의 종교·정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친견, 그의 사상과 원력을 들어보았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한국불교의 장·단점과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은 위대한 대승불교의 전통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티베트처럼 많은 대승경전이 있으며, 비속한 전통도 많이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불자들은 종교적 신념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진지한 것 같습니다. 또 스님들은 마음의 평온을 잘 유지하고 타종교에 대해서도 관대해 대승불교다운 포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불교를 종교가 아닌 ‘마음의 과학’이라고도 합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강조하는 한국불교는 인류애의 확산과 전지구적인 환경보호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지켜본 소감과 두 정상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로 상대방을 신뢰해야 합니다. 무력을 사용하면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분쟁의 해결책은 오직 대화 뿐이란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한 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한의 두 지도자는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진 만큼 잘 해 나갈 것입니다. 인내와 결단력, 전체적인 안목으로 대화를 지속하면 평화통일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분단 50년의 고통을 통해 충분히 인내했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특징과 인류의 당면과제에 대한 티베트 불교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티베트 불교는 대·소승·탄트라 불교의 가르침을 모두 받아

들었으며, 다양한 종교와 과학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동·식물에게까지 미치는 ‘자비심’과 이로 인한 ‘내적인 평화’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 티베트불교의 전통은 오늘날 비폭력과 평화공존, 생태보호, 인권운동 등을 통해 평화로운 지구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의 종교·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크게 짓는다고 전통문화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티베트인

지와 집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시오.

▲세상의 인연에 의존해서 존재를 보지 말고, 개별적으로 궁극적인 본질에 대해 관(觀)하는 ‘지혜의 수행’을 하면 무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족(自足)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탐·진·치 3독이 점차 줄어들어 온갖 욕심과 집착이 저절로 소멸됩니다.

한국 방문시 하고 싶은 일과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나의 외국방문은 언제나 비정치적인 영(靈)적 방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종교적 화합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는 주로 불교학자와 일반 학자, 학생, 시민들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합니다. 물론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남의 기회가 있습니다.

### 한국불교 인류에 확산에 공헌 할 것 만족할 줄 알면 욕심·집착 절로 소멸 티베트 불교 평화로운 지구건설 기여

모두가 전통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을 토대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또다른 전통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버세계와 불교세계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잘 모릅니다(I don't know). 하지만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인터넷처럼 인터넷은 세계 시민의 의식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생각에 시·공을 초월해 모든 이들과 동시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교와 인터넷은 유사성을 갖고 상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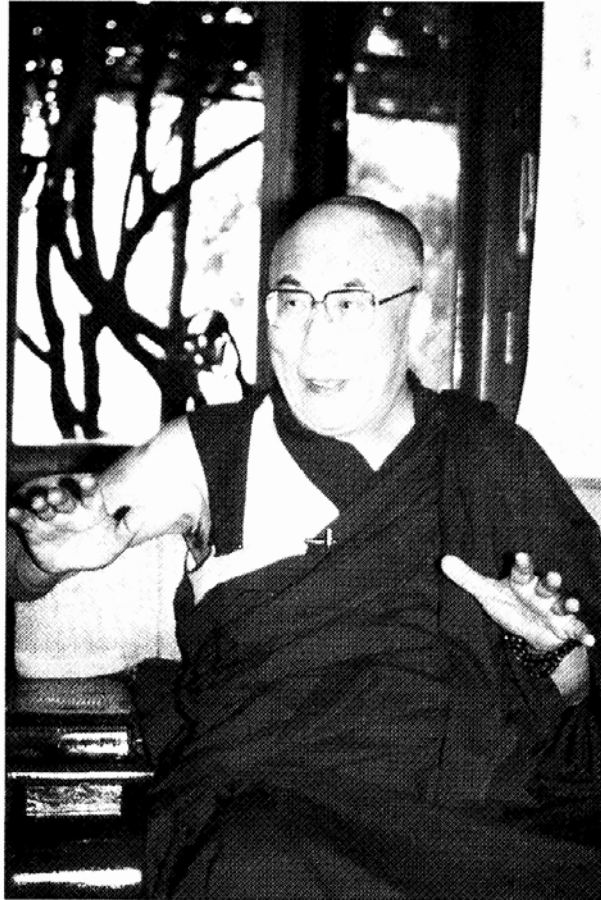
스님께서는 전 세계를 무대로 정력적인 전법활동에 나서고 계십니다. 건강비결과 하루 일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건강비결은 별개 없습니다. 공양 잘하고 잘 자고 긍정적인 사고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하루 일과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오후 8시30분에 끝나며, 오후 불식합니다. 방문객을 접견하는 것 외에는 명상·독서로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은 <불교 인식이론>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국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제가 한국은 늘 형제의 나라로 여겨집니다. 한국 불자들이 티베트의 고통스런 현실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해 무한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한국의 불자들에게 우리의 삶은 매우 소중하기에 의미있고 창조적으로 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자비심에 바탕을 둔 선한 마음을 일으키라고 당부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다람살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티베트 '살아있는 부처'... 독립운동 주도

#### 달라이 라마는 누구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어로 '지혜의 큰바다' 또는 '큰 지혜를 가진 스승'이란 의미로 티베트인에게는 종교적으로는 살아있는 부처로 숭앙받는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며, 동시에 정치적적으로는 최고 정책결정권을 갖는 국가 통치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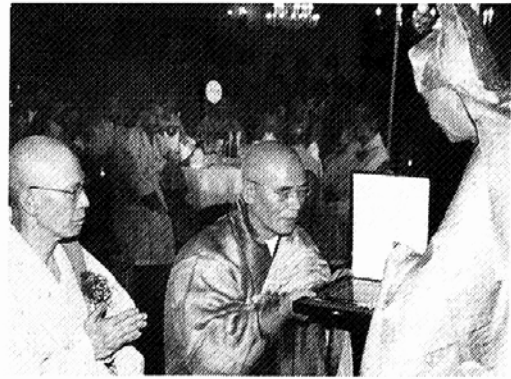
현재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는 제14대 보명은 덴진 가초. 1935년 7월6일 티베트의 동북부지역인 타크처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티베트인들은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환생'을 한다고 믿는 불교전통이 있으며 이런 전통에 따라 덴진 가초는 두살때 제13대 달라이 라마인 툴텐 가초의 환생자로 인정받아 '왕위계승'

교육을 받아 40년 정식으로 14대 달라이 라마로 즉위했다. 이후 공산화된 중국이 1950년 티베트를 침략해 합병을 하자 달라이 라마는 국토와 고유문화 및 종교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59년 발생한 티베트 국민의 민중봉기에 대해 중국이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인도로 정치적 망명을 했다.

그는 고국 티베트와 제일 가까운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우려던 중 1987년 난민을 수습하는 한편 일부 티베트인들의 '무장투쟁' '강경투쟁' 주장을 물리치며 평화와 비폭력에 의한 티베트독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는 비폭력 평화주의에 입각한 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핵실험 금지와 세계 평화 및 인권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막사이사이상과 스웨덴의 월렌베르히 인권상을 받기도 했다.



### 대한법화종 법흥 총무원장 취임식

대한불교 법화종은 13일 서울 세종홀에서 창종 제54주년 기념 대법회와 법흥 총무원장, 혜도 포교원장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법화종 종정 금파스님, 원로 정공, 구암 스님, 전국 각 교구 총무원장과 주지, 신도 등 8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법회에서 제16대 총무원장 법흥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도들과 함께 으뜸가는 종단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종단의 화합과 재도약을 위하여 징계자에 대한 사면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 총무원장 윤경스님과 포교원장 도안스님에 대해 공로패가 수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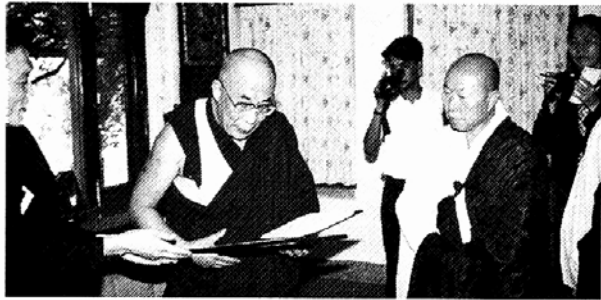
### 전북 장수 용성조사전 상량식

백용성스님 탄신 137주기를 맞아 9일 스님의 탄생지 장수 죽림정사에서 탄신 제137회 불탄제와 건립중인 조사전의 상량식, 생가 입주초 법회가 봉행됐다. 상량사 조실 월성스님, 죽림정사 조실 도문스님 등 50여 스님과 백용성조사유훈 살현후원회 한명욱 회장, 김상두 장수군수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불심도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3·1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여 남북통일을 성취하자”고 발언했다.



### 대불어 직지사서 지도자 연수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협회(회장 덕진 스님)는 4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29차 전국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제2기 연꽃 어린이 기자 연수회도 함께 열렸다.



◇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위 방문단장 여연스님이 달라이 라마스님에게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고 있다.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 곧 신청해 주십시오.

## 지원활동기를 위한 워크샵!

이번 워크샵은 일반인 및 자원활동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전 국민 1인 1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홍보, '생명나눔운동'에 관한 의견교환 및 상담기법,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훌륭한 자원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장기기증 후원이요

- 일 시 : 7월 8일 (토) - 7월 9일 (일)
- 장 소 : 경북 경주
- 대 상 : 자원활동가, 자원활동 희망자, 일반인
- 참가비 : 무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출발자는 관광버스 이용, 단, 지방참가자는 교통비 본인 부담)

### 참가 신청

7월 3일 (월)까지 전화 및 e-mail 접수  
참가신청시 성명 및 나이, 연락처, 주소지 확인

### 문의 및 접수

Tel : 02-734-8050 / E-mail : lisa@lisa.or.kr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

(110-170 서울시 종로구 권지동 74-8. http://www.lisa.or.kr, 02-734-8050)

## 人事말씀

大韓佛敎 曹溪宗 元老議長이신 眞空堂 呑星大宗師의 永訣式을 佛紀 2544年 6月 12日(陰 5月 11日)敎團의 元老·大德스님과 在家佛子 그리고 四部大衆을 모시고 宗團의 元老會議葬을 嚴肅히 奉行하였습니다. 公私간 多忙하심에도 不拘하고 參席해 주신데 대하여 眞心히 찾아 뵈고 人事 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慌忙中 우선 紙面으로 심심한 感謝의 人事를 드리오니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佛紀 2544年 6月 13日

### 四十九齋 案内

眞空堂 呑星大宗師 四十九齋를 다음과 같이 奉行합니다.

- 다 음 -

| 구분  | 장 소 | 일 시                 | 전 화           |
|-----|-----|---------------------|---------------|
| 1 재 | 공림사 | 6월 14일(음 5.13.) 수요일 | 0445)833-1029 |
| 2 재 | 법주사 | 6월 21일(음 5.20.) "   | 0433)543-3615 |
| 3 재 | "   | 6월 28일(음 5.27.) "   | "             |
| 4 재 | "   | 7월 5일(음 6. 4.) "    | "             |
| 5 재 | "   | 7월 12일(음 6.11.) "   | "             |
| 6 재 | "   | 7월 19일(음 6.18.) "   | "             |
| 7 재 | "   | 7월 26일(음 6.25.) "   | "             |

▶문의 : 충북 보은군 내수리면 사내리 209 법 주 사 ☎ (0433)543-3615 FAX (0433)543-3620

大韓佛敎 曹溪宗 眞空堂 呑星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葬儀委員長 종 산 護 喪 보 성  
指導委員長 정 대 執行委員長 지 명 합 장  
門中 代表 범 행 門徒 代表 성 본